

文學碩士 學位論文

『칼라퍼플』에 나타난 흑인여성의 정체성 연구

The Identity of an Afro-American Woman
in *The Color Purple*

指導教授 朴正吉

2006년 2월

韓國海洋大學交 大學院

英語英文學科

金蕙聖

本 論文을 金惠聖의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 함

委員長 李 孝 雄 印

委 員 張 世 銀 印

委 員 朴 正 吉 印

2006년 2월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英 語 英 文 學 科

金 惠 聖

목 차

I. 서론	1
II. 본론	
1. 흑인여성의 정체성	4
2. 인종과 성차	20
3. 정체성 회복	29
III. 결론	40
참고문헌	44

The Identity of an Afro-American Woman in *The Color Purple*

Kim, Hae Seong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study how Afro-American women are repressed by class, race, and gender. Black feminists have argued that the Afro-American critical theories which emerged during the Black Arts Movement of the late sixties and seventies were overtly masculinist. There is an assumption that the black feminist critics will necessarily be black women because white and black men both view things from a male perspective. Alice Walker belongs to the tradition of black feminist writers.

She depicts class, race, and gender oppression in her works. Her works are focussed on the war of gender. Her most famous work is *The Color Purple*(1982). She depicted racial and gender discrimination that she had experienced during her childhood in her family. Walker was born in rural Georgia in the South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e was the eighth and the youngest child of sharecropper.

In *The Color Purple* Celie tells her story. Celie represents the black women of the South. She writes letters to God in which she tells about her life. Her roles as daughter, wife, sister, and mother. In the course of her story she meets a series of other black women who shape her life: Nettie(Celie's sister, who becomes a missionary teacher in Africa), Shug Avery(the blues

singer her husband Mr.- is in love with), and who ironically becomes Celie's salvation. There is also Sofia, the strong-willed daughter-in-law whose strength and courage inspires Celie, and Squeak who goes through an awakening of her own. Throughout the story Celie is the center of the community of women, the one who knows how to survive. She is uneducated and she is writing exactly as she speaks and thinks. There is nothing artificial about her writing style. The most distinctive characteristic about Celie's letters are their naturalness. However, it will be a long time before she gains enough self-esteem.

Celie began her life as a virtual slave, the victim of men, of traditional sexual roles, of racism, and of innumerable social injustices. She has struggled for many years, keeping alive the memory of Nettie, believing in Nettie, despite the fact that she had no proof that Nettie was still alive. This is testimony to Celie's courageous spirit. As is Celie's love for Nettie and for Shug, which finally allows her to forgive her husband, for all of his intentional cruelty. Love heals heartaches, and love leads Celie to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When the novel ends, Celie is solid. Love has sustained her. She has learned how to love herself and to share love despite continually cruel pressures. She has endured and learned how to love herself and to share love despite continually cruel pressures. She has endured and learned to fight and she has won her battles.

What Walker demonstrates most clearly in her novel is that one has to make his or her own world. She trusts one's potential ability to change and in her words to survive wholly.

I. 서론

미국은 역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유럽대륙과 영국에서와는 다른 역사가 존재하며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구의 의식은 계층적이고 이분법적이다. 전체적이고 통합적이라기보다 분열적이다.

1960년대 이후 미국사회의 변화와 함께 소수민족들은 사회에 문제의 목소리를 제기하였다. 1960년대까지 미국 흑인 문학은 프레더릭 더글라스(Frederick Douglass)를 시작으로 듀보아(W.E.B. Du Bois), 진 투머(Jean Toomer), 랭스톤 휴즈(Langston Hughes), 리처드 라이트(Richard Wright), 랠프 엘리슨(Ralph Ellison), 제임스 볼드윈(James Baldwin) 등 흑인 남성 작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흑인 여성 작가들은 그들만의 문학 창작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920-30년대의 문선집에 실리지 못했다. 그 이유는 흑인 남성들과 백인 남성들이 문학작품을 평가하고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단에서 소외되어온 여성 작가들은 1970-80년대에 이르러서야 그들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였다. 그것은 보수적인 지배 문화에 대한 큰 저항이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한 여성작가들로는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 쉐지(Ntozake Shange), 소냐 산체스(Sonia Sanchez), 캐롤린 로저스(Carolyn Rodgers), 폴 마샬(Paule Marshall), 니키 지오바니(Nikki Giovanni), 루실 클리프톤(Lucille Clifton), 앨리스 워커(Alice Walker)이다.

그들이 제기한 고통스런 문제들이란 인종차별과 계급차별 그리고 성차별이었다. 흑인 남성작가들은 주로 인종차별문제에 대해 다루었으나 흑인 여성작가들은 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인종과 성의 문제를 동시에 다룬다. 그래서 이중으로 소외받고 상처 입은 흑인 여성의 고통의

역사들을 폭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흑인 사회내의 성의 전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드러낸 작가는 흑인 여성작가인 엘리스 위커로 『칼라 퍼플』은 그녀의 대표작이다(Kaplan, 177).

엘리스 위커는 미국남부 조지아주 이튼톤(Eatonton)에서 가난한 소작인의 여덟 아이들 중 막내로 출생하였다. 위커는 어려서부터 겪은 인종차별과 인권 유린 그리고 가족 내의 성차별 등을 작품 속에서 진실하게 묘사하고 있다.

『칼라퍼플』은 서간체로서 주인공 쉘리가 하나님과 네티에게 보내는 수십 통의 편지들로 구성 되어 있다. 가부장적인 흑인 내부사회에서의 근친상간 등 성적 폭력 뿐 아니라 노동을 강요당하며 침묵을 강요당하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잠재되어있던 창조력을 되찾아 정신적 독립을 이루어 모든 억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자아를 확립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런 쉘리의 자아 추구 과정에서 위커는 주변 여성들 간에 형성하는 깊은 자매애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위커는 여기서 우머니즘(Womanism)도 중요한 극복 방법으로 주장한다. 흑인 여성의 평등을 위해 흑인 페미니스트 특유의 입장이 필요했음을 알리고 있다. 위커의 우머니즘적 접근은 소수 집단의 상황이 배제 되지 않은 다양한 차이성들의 공존상태를 구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런 위커의 우머니즘이 여성이라는 주체를 말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이라는 특성을 더욱 강화 시키면서도 포스트 모던적 입장이 추구하는 남/여, 육체/정신 이라는 이분법적 경계의 와해와 다양한 차이성들의 공존을 도모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녀는 또한 전체성(Wholeness)을 강조한다. 즉 인간으로서 온전한 위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남성들을 변화시켜 그들의 남성 중심적 편견과 미흡함을 극복하고 소위 여성적 속성을 겸비한 통합화된 남성으로 변

화하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문학에서 배제되어온 흑인 여성을 대변하고 편파적인 문학에 전체성을 가하기 위해서였다.

어떤 주제의 진실은 그 이야기의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 되었을 때 도달되는 것이라 믿는다. 작가란 다른 작가의 이야기에서 빠진 부분을 쓰는 것이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이야기이다.

I believe that truth about any subject only comes when all the sides of story are put together. Each Writer writes the missing parts to the other writer's story. And the whole story is what I'm after. (*Search*, 49)

라는 그녀의 말에서도 보이듯이 워커는 지금까지의 문학에서 백인 남성 은 물론 흑인 남성작가들도 대변하지 못한 흑인 여성들의 이중적 고통 (백인 우월사상과 남성우월 사상으로부터의 고통)을 보여줌으로써 흑인 여성이 배제된 문학에 전체성을 가하는데 전력한다.

특히 워커는 흑인 사회의 내부문제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억압에 문제를 집중시켰다. 그래서 흑인 외부 사회에서 뿐 아니라 흑인 내부 사회에서조차 흑인이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폭력을 당해온 흑인 여성의 현실을 폭로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서론에 이어 본 논문의 1장에서는 흑인 남성사회의 성적 폭력과 억압에 의해 자아를 상실하는 흑인여성 쉘리의 정체성을 살펴보고 2장에서는 인종차와 성차로 흑인 사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흑인 외부사회에서도 억압과 폭력을 겪는 현실을 살펴보겠으며 3장에서는 그런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워커가 주장하는 여성관인 우머니즘과 자매애에 대해서 다루어보고 결론에서는 이런 고통과 억압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워커의 인생관은 긍정적이며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자하고 완전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전체성을 규명해봄으로써 흑

인여성의 정체성 회복을 이루는 과정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흑인 여성의 정체성

이 작품에 나타난 대표적 흑인 여성인 쉘리(Celie)의 자아 상실은 성적 학대와, 언어와 의사소통에 대한 남성의 억압 두 가지로 나타난다. 쉘리는 14살의 어린 나이에 의붓아버지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한다. 그리고 이런 폭력에 대해 침묵을 강요받는다.

넌 신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랬다간 네 엄마 죽고 말테니

You better not never tell nobody but God. It'd kill your mammy. (Walker, 1)¹⁾

남성이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이 여성의 정체성을 뺏는 것이라고 한다면 쉘리의 경우 아버지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의 기반이 무너진 것이다. 쉘리는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으로 인해 두 번 출산한다. 쉘리는 모성을 베풀어 볼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아이들은 의붓아버지에 의해 알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진다. 쉘리의 어머니는 병세가 악화되어 쉘리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세상을 떠난다. 쉘리는 의붓아버지의 학대와 폭력 속에서 살림을 맡게 된다.

새장가를 든 후 의붓아버지인 알폰소(Alphonso)가 그녀의 동생 네티(Nettie)에게 음흉한 시선을 보낸다. 불안을 느낀 쉘리는 네티에게서, 아이들이 있는 홀아비 미스터-와 알고 지낸다는 사실을 듣는다. 그리고 동생 네티가 그 홀아비와 결혼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의붓아버지 알폰소는

1) 앞으로 본 작품 인용은 쪽수만 표시하기로 한다.

네티와 결혼하기위해 찾아온 미스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애는(Nettie) 너무 어리다. 그 애에게 학교 교육을 더욱 받게 해야 하며 교사를 만들어야 한다며, 더 나이든 언니 썰리와 결혼을 강요한다. 의붓아버지는 썰리를 미스터-에게 동물을 처분하듯 떠넘긴다. 결혼 당사자인 썰리는 제외된 채, 의붓아버지는 썰리를 미스터-에게 동물을 처분하듯 떠넘긴다. 의붓아버지와 미스터-는 썰리를 사람이 아니라 사고파는 대상 즉 물건이나 동물로 여긴다(Byerman, 61).

그녀는 어쨌든 나이가 많아. 그녀는 먼저 결혼해야 해. 그러나 그 애는 처녀는 아니라는 것 자네도 알겠지. 상한 애야 두 번이나 저애는 못 생겼어 라고 아버지가 말했다. 그런데 힘든 일에는 이골 났지. 그런데다 깨끗한 아이야. 그런데다 하느님이 저애 길을 잘 들여 놓았지. 자네 마음대로 무엇이나 다 해도 되고, 그러면 저 애 자네더러 먹여 달라 옷 달라 보채지도 않아.

She the oldest anyway. She ought to marry first. She ain't fresh tho, but I spect you know that. She spoiled twice She ugly. He say. But ain't no stranger to hard work, And she clean. And God done fixed her. You can do everything just like you want to and She ain't gonna make you feed it or clothe it.(9)

동생 네티 대신 결혼하는 썰리는, 그녀를 따르는 암소와 똑같이 취급된 채, 의붓아버지에게서 미스터-로 건네진다. 이것을 키쓰 바이어맨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두 사람사이에 일어나는 대화는 가축에 대한 협상을 하는 형태를 취하며, 노예상인이 경매구역과 인간상품을 팔고 교환하는 것을 반영한다.

후에 시누이 케이트가 쉘리에게 옷이라도 사주라고 Mr.-에게 말한다. 그러자 그는 쉘리를 쳐다보았다. 그 눈초리는 흙이라도 쳐다보는 식이었다. 저게 뭐가 필요하다 그런다 말이지?

Buy Celie some clothes. She say to Mr.- She need clothes? He ast.
Well, look at her. He look at me. It like he looking at the earth.
It need somethin?(21)

미스터-는 쉘리를 동물이나 사물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미스터-는 쉘리를 그저 노동과 성을 위한 도구로만 간주한다. 그녀의 정체성은 존재 하지 않는다. 쉘리는 미스터-와 결혼한 첫날, 말아들에게서 돌멩이를 맞고 머리가 깨어져 피를 줄줄 흘리며 다친 채 남편에게 성관계를 강요당한다. 쉘리의 감정은 전혀 생각지 않고 노동과 성적 도구로만 이용한다. 흑인 남성들의 흑인 여성에 대한 가치관을 보여준다.

의붓아버지인 알폰소의 억압에도 그녀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저항 해 볼 생각도 하지 못한다.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가르침 때문에, 그런 부당함에도 스스로 침묵 해버린다.

성경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 그리고는 얼마 후에 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화가 나려고 할 때면 병이 나 버렸어. 토하고 싶은 기분 들고 기분이 아주 나빠졌어. 그러다가 전혀 아무것도 안 느끼기 시작 했어.

Bible say Honor father and mother no matter what. Then after while everytime I got mad or start to feel mad, I got sick. Felt like throwing up. Terrible feeling. Then I start to feel nothing at all.(44)

그리고 알폰소와 또 다른 억압자인 남편 미스터-가 자신에게 구타하는 등 폭력을 행할 때도 이 세상의 삶은 곧 끝난다는 등의 체념과 포기로 침묵해 버린다.

글쎄 가끔 미스터-가 나한테 상당히 심하게 할 때 있어. 그러면 나 하느님한테 얘기 할 수밖에 없지. 하지만 그이는 내 남편이야, 나 체념 해. 이 세상에서 사는 날은 곧 끝 날거야. 나는 그런 생각해. 천당에서 사는 날은 한없이 계속되고.

Well, sometime Mr.- git on me pretty hard. I have to talk to Old Maker. But he my husband. I shrug my shoulders. This life soon be over, I say. Heaven last always.(44)

가부장 사회의 절대적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아버지와 남편에 대한 여성의 복종을 요구하는, 백인 남성위주의 왜곡된 가부장적 종교관에서 나오는 생각이다. 거둬지는 폭력과 노동 성적 학대의 경험은 썰리로 하여금 자신이 인간임을 부정하고 인식이 없는 사물로 여기도록 만든다. 이는 남편 미스터-가 때릴 때 마다 자신을 나무로 생각하려한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아이들을 때리는 것처럼 나를 때린다. 그는 아이들도 것처럼 심하게 때리지는 않는다. 그는 썰리 벨트 가져와 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문틈으로 엿 보고 있었다. 나는 나무가 되었다고 상상한다.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 썰리 너는 나무란다. 그래서 나는 나무들이 사람을 무서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He beat me like he beat the children. Cept he don't never hardly beat them. He say, Celie, git the belt. The children be outside the room, peeking through the cracks. It all I can do not to cry. I make myself wood. I say to myself, Celie, you a tree. That's how come I Know trees fear man.(23)

때때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화풀이의 대상’으로 쉴리를 구타하는 미스터-의 행위는 흑인 사회에 만연된 흑인 남성들의 고질적인 콤플렉스에서 나온 것이다. 즉 그들은 백인 사회에서 받는 멸시와 차별을 약자인 흑인 여성들에게 되풀이함으로써 백인사회에서 상실된 남성성과 여성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보장 받으려고 한다. 이처럼 위커는 미국사회에서 인종차별과 성차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듯 쉴리는 남성의 성적 학대와 폭력에서 생존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스스로를 비인간화 시킨 것이다(김난주, 25). 그 때문에 미스터-로부터의 반복되는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는 쉴리를 보고, 네티가 “언니 싸워야 해”라고 충고하지만 쉴리는 “나는 싸울 줄 몰라 내가 아는 거라곤 살아남는 것뿐이야.”라고 이야기한다. 쉴리는 자신이 그저 살아있다는 것에 위안하며 어떤 반항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자아를 인정하지 못하는 쉴리는 흑인과 여성은 선천적으로 열등하며 무가치하다는 백인 남성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그녀의 자기정체성 부인은 작품 초반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신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자아를 상실한다. 쉴리는 자신과 달리 용감하며 가부장사회에 저항적인 소피아를 굴복시키려고 고민하는 하르포에게 그녀를 때리라고 충고한다. 이것은 폭력으로 쉴리를 굴복 시키려는 미스터-의 영향 때문이다. 이것은 쉴리가 얼마나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는가를 보여준다. 또 그녀의 시누이 케이트가 쉴리에게 미스터-와 하르포의 횡포에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고 하자 쉴리는 계속 자신은 싸우지 않을 것 이라고 말하며 그냥 살아있는 것에 만족하며 자신이 있는 곳인 가정에 그냥 머물겠다고 체념한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한 것이 순종적 체념의 태도라며 그것을 정당화한다.

쩨리 싸우세요. 내가 대신해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 미안해요. 꼭 싸워서 이겨야만해요. 나는 싸우지 않을 거야. 그냥 내가 서있는 이곳에 묵묵히 서 있을 거야.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말이야.

You got to fight them. Celie. she say. I can't do it for you. You got to fight them for yourself. I don't say nothing. I don't fight, I stay where I'm told, But I'm alive.(18)

쩨리의 자아 상실의 위기는 색의 상징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그 예로 케이트는 하녀와 같은 생활을 하는 찰리를 보고 미스터에게 찰리의 옷을 사주기를 요청한다. 그들은 옷을 사러 가게에 간다. 케이트는 찰리에게 무슨 색의 옷을 원하느냐고 묻자 찰리는 셔그 에버리를 떠올리며 “붉은 색이 약간 섞인 자주색”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가게에 찰리가 찾는 색이 없자, 케이트는 찰리에게 붉은 색의 옷을 권한다. 그러자 찰리는 그녀가 입기에는 ‘너무 행복한 색’의 옷이라며, 미스터가 돈을 지불하지 않을 거라며 그 외의 색들 갈색 밤색 파란색중에서 파란 색을 선택한다. 선택의 상황에서 찰리가 셔그와 자주색을 연결하여 생각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찰리와는 달리 자유 분방하며 독립적인 생을 즐기는 셔그에게 자주색이 어울릴 것이라는 상상은 자주색이 억압에 대한 저항과 자유를 상징하는 색이라는 찰리 자신의 해석에 기인하고 있다. 자신을 둘러싼 억압을 극복하고 자유를 누리는 여성에게 어울리는 이 색은 자아상실의 상태에 있는 찰리에게는 금지된 색이었다.

의붓아버지의 성폭력으로 인해 시작되는 남성에게 대한 두려움은 “심지어 나는 남자들을 쳐다보지도 못 해”라는 그녀의 고백을 미루어 보아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찰리는 주위의 모든 남성들을 두렵고 억압적인 존재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찰리는 이런 환경에서 생존 수단으로 스스로를 비인간화 시키며 순종과 복종을 내면화한다. 그녀가 억압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나무라고 생각한 것은 결국 생존을 위한 정신적인 무장이었으며 인간은 아니지만 생명체인 나무에 비유한 것은 상실 위기에 놓인 자아를 지키려는 쉘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의붓아버지로부터의 수차례의 강간이후 침묵을 강요받을 때 그녀의 고통을 토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 신에게 쓰는, 쉘리의 편지는 자아인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녀는 편지글을 씌움 통해, 자신의 억눌린 감정과 고통을 마치 대화하듯이 씌움으로써 자신의 위안과 생존의 수단이 되며 마침내 그녀 자신의 삶에 커다란 변화와 성숙을 가져온다. 글을 쓰는 것은 쉘리에게 자신에게 가해진 고통을 치유하고 “정화적 해방감”을 주며 그녀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Wendy, 85).

남편 미스터는 백인 남성 중심의 가치관으로 쉘리를 검고 가난하고 못 생기고 여자여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213)로 규정 해버린다.

그리고 미스터가 쉘리에게 행한 또 다른 고통은, 네티의 편지를 가로챈 데 있다. 네티가 위협적인 의붓아버지를 떠나 언니에게 와있던 적이 있었다.

미스터는 네티를 향한 자신의 성적 요구가 계속 거부되자 쉘리를 위협하며 네티를 떠나게 한다. 그 뒤를 쫓아가 겁탈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편지 탈취는 이에 대한 보복이다. 네티를 떠나보내며 쉘리는 네티에게 편지를 쓰라고 거듭 당부 한다. 쉘리와 네티 두 자매에게 글쓰기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극복하는 생명의 활동이 된다. 쉘리가 글을 쓰는 이유는 작가 워커가 글을 쓰는 이유와 같다. 워커는 그녀의 삶에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첫째 어릴 때 오빠들의 비비 총 싸움과 인디언 놀이 장난으로 오른쪽 눈이 실명된 것이며 둘째 그녀의 대학 재학시절에 유산을 시킨 것을 들 수가 있겠다(임소희, 8).

그녀는 젊은 날의 좌절들로 인해 자살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글쓰기를 시작하였다고 위커 자신은 고백한다.

내가 글을 쓰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이다. 나는 살기위해 글을 쓴다.

I have written to stay alive. I have written to survive. (Writing to Survive)

쉴리의 글쓰기 행위는 쉴리의 억압된 상처를 치유하고 정신적으로 격려하며 쉴리의 자아확립에 큰 기여를 한다.

쉴리가 의붓아버지의 성적 폭력 이후 침묵을 강요당함에도 불구하고 쓰기 시작한 신에게 보내는 편지는 확실한 자아 표현의 행위이고 자신의 억압과 고통을 승화시킨 행위이다. 쉴리의 글쓰기는, 서구 문학 전통에서 여성에게 허용된 자아표현의 주된 수단중의 하나인 편지글의 형식이다(Christian, 51). 주인공 쉴리는 과거의 지배당하고 교육받지 못한 흑인 소녀에서 방언사용 예도 불구하고 상당히 반성적이고 민감한 자신의 이야기의 화자이며 저자로 변모해간다. 과거의 내러티브와 현재의 내러티브 사이의 미묘한 상호작용 때문에 쉴리는 자기 이야기의 주체인 동시에 객체로 등장한다.

이 편지글의 특징은 의미전달에 있어서 꾸민 부분이 전혀 없이 자연스럽고 솔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편지에서 그녀가 구사하는 독특한 흑인 영어는, 크리스찬이 조라 닐 허스톤 이래로 앨리스 위커처럼 Black Folk English의 정수를 그렇게 훌륭히 표현 해낸 작가는 없었다라고 그리고 있다.

쉴리는 먼저 자신의 편지를 신에게 그 다음은 네티에게 쓰고, 네티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있는 동안 쉴리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나 네티가 보낸 편지는 미스터에 의해 은닉당하다가 결국은 쉴리와 그녀의 친구인 셔그 에버리에 의해 다시 찾고 읽혀진다.

주제가 강조하는 것은 백인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보다는 흑인사회 내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가정 내의 폭력과 억압이라고 할 수 있다. 쥘리의 편지는 아버지의 침묵에 대한 강요로 시작된다. “넌 신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랬다간 네 엄만 죽고 말테니까.”라는 의붓아버지의 말은 여성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행위라 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쥘리의 글쓰기는 ‘강요된 침묵’에 대해 그 침묵을 깨는 반항적 언어행위이기도 한 것이다(김성은, 23).

이처럼 흑인 화자가 자신의 음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흑인 전통의 중심을 이루는 반복된 모티프로써 미국 흑인 문학의 전통을 이룬다. 바바라 크리스찬은 흑인 여성작가의 소설에 있어서 언어와 형식은 미국 내 흑인 문화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경험 그 자체에서도 연원한다고 보고 일기나 편지가 여성의 일상 경험과 감정 그들의 역사를 기록 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 방식이었음을 강조 했다(Christian, 39).

미스터-의 아들 하르포가 체격이 크고 성격이 남자 같은 여자 소피아와 결혼을 한다. 소피아는 강인하고 반항적이며 용감한 흑인 여성이다. 어느 날 그녀는 쥘리에게 자신은 싸우면서 살아왔다고 말한다. 아버지와 형제들과 사촌들과 아저씨들과도 싸웠다고 말한다.

어느 날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시내에 나갔을 때 우연히 백인 시장부부를 만나게 된다. 그때 백인 시장부인이 그녀의 아이들을 쓰다듬으며 소피아에게 자신의 하녀가 되어달라고 요구한다. 이에 소피아는 Hell No라고 단호히 거절하며 시장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그 결과 소피아는 백인경찰들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한 후 투옥된다. 소피아는 교도소에서 빨래를 했다. 오전 다섯 시부터 오후 여덟 시까지 하루 종일 빨래를 했다. 그것들은 더러운 이부자리와 담요, 지저분한 죄수복이었다.

쥘리는 감옥에 갇힌 그녀를 돌보아준다. 쥘리는 소피아를 구하기 위

해 신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신과 천사들은 모두 백인이며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

나는 천사에 대해 생각을 했다. 신은 전차를 타고 내려와서 소피아를 구하여 집으로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을 하고 있었다. 천사들은 모두가 백인이었다. 하얀 머리에 하얀 눈을 가진 마치 색소 결핍증에 걸린 것처럼 보였다. 마치 독에서 일하는 강인한 백인 남성처럼 신은 모두 백인이다.

I think bout angels, God coming down by chariot, swining down real low and carrying ole Sofia home. I see'em all as clear as day. Angels all in white, white hair and white eyes, look like albinos. God all white too. looking like some stout white man work at the bank.(96)

쉴리의 남편인 앨버트의 전처였던 셔그를 보기로 하자. 셔그는 설탕을 뜻하는 Sugar의 줄임말이다. 셔그는 블루스가수이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화려한 여성이다. 그녀는 대표적인 우머니스트이다.

셔그가 쉴리에게 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고 했을 때 나이 든 백인 남성의 형상을 한 미국사회의 정형화된 가부장적 신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 한다. 그는 나이들고 키가 크고 회색수염을 길렀고 백인이야. 그는 흰 옷을 입고 맨발을 하고 있어.(165) 쉴리는 자신을 포기하고 남성에 대한 복종을 정당화하게 된다. 또 같은 이유로 남편 미스터-의 학대를 참아내고 있다. 그래서 이 승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면 천국에 가서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세를 가진다. 결국 쉴리가 믿는 신은 백인의 왜곡된 종교관이 반영된 신으로 그녀에게 자신을 포기하게하고 남성에 대한 복종을 강요한다. 신의 이미지가 백인 남성이라는 것은 그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백인 남성이라는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는 가르침에 따라 쉴리는 계부의 폭력에도 그가 아버지라는 이유로

자신은 화를 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 한다.

미스터는 쥘리의 정체성을 대신하는 불경한 삼위일체의 권력 속에서 가부장제의신 그리고 쥘리의 계부와 합류한다. 쥘리가 이처럼 가부장적 종교에 복종하는 것은 아버지와 남편에 대한 여성의 복종을 강요하는 신관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헨더슨은 말하고 있다.

아드너는 한 사회의 무의식적인 사고방식이나 일반적인 신념들은 그 사회의 지배집단과 무언 집단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의식을 표현하는 형식이나 구조를 지배집단이 조종하기 때문에 무언집단은 그 지배집단이 허락한 형식을 통해서만 그들의 신념을 계획 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쥘리의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쥘리 역시 지배집단에 의해 억압받고 있고 그녀의 의식은 지배집단이 그려놓은 이미지를 이상화 시키면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의지에 인해서 가능 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쥘리에게 주어진 열등한 지위와 부당한 대우를 정당화 시키는 기능만을 하고 있다. 이처럼 쥘리가 추종하는 신은 주어진 환경에 도전보다는 순종하고 포기하기를 강요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신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므로 쥘리를 정말 위로하고 성숙 시키지 못한다. 쥘리의 종교관은 그녀가 겪고 있는 자아상실의 위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정당화하는 기능만을 하고 있다. 쥘리가 믿던 신은 자아를 잃은 쥘리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고 변화도 주지 못하는 백인남성의 왜곡된 신관이 었다.

그런데 어느날 셔그가 지치고 병이 들어 미스터-의 집으로 와있게 되자 쥘리가 그녀를 돌보아준다. 그렇게 해서 쥘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가지게 되었고 미스터-의 전처 셔그와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흑인 여성들에게 있어서 타인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체의식과 연대의 끈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신이 백인이며 남자라면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하느님에게 썰리는 관심을 잃어버린다. 썰리는 셔그의 도움으로 전혀 새로운 하느님에 대해 알게 된다. 셔그는 자신이 어떻게 새로운 하느님을 발견 했는지 썰리에게 들려준다. 우선 백인 노인의 모습을 과감히 떨쳐버린다. 그리고 나무, 공기, 새,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주의를 돌리고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것의 일부가 되는 느낌, 나무가 잘리면 자기 팔이 피 흘릴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런 일체감에 셔그는 감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러나 이 둘 다를 포용하는 그것임을 깨닫는다. 이 하느님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종교관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녀는 말한다. 백인 노인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단계는 나무였어. 그 다음은 공기 다음은 새들, 다음으로는 사람들 그러나 어느 날 말없이 앉아 있다가 마치 엄마 잃은 아이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 사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내게 다가왔지. 모든 것의 일부라는 그런 느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걸 난 알게 됐어. 내가 나무를 자르면 내 팔이 피를 흘리리라는 것을. 그리고 난 웃고 울면서 온 집안을 뛰어 다녔어.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난 알았던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놓쳐 버릴 수가 없지. 그게 뭐하고 같으냐하면 말이야.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웃어 보이며 나의 허벅지위를 어루만진다.

She say, my first step from the old white man was trees. Then air, then birds then other people. But one day when I was sitting quiet and feeling like a motherless child, which, I was, it come to me; that feeling of being part of everything, not separate at all. I knew if I cut a tree, my arm would bleed. And I laughed and I cried and I run all around the house. I knew just what it was. In fact, when it happen, you can't miss it. It

sort like you know what, she say grinning and rubbing high up on my thigh(203)

썰리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는 것은 셔그의 도움으로 마침내 네티의 편지를 찾게 되면서부터 이다. 썰리의 분노는 자신을 주체적 자아로 파악하게 하는 주요감정이 된다. 이는 피 억압자에게 자신의 고통의 실체를 파악하게하고 투쟁할 수 있게 한다.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 읽고 쓰기를 가르쳐준 네티는 미스터-의 방해로 30년간 썰리와 헤어져 지낸다. 워커의 여성인물들은 대개 소작인들로서 남부땅과 남편에게 예속되어 밭에서 일하거나 아이들을 양육해야하는 최하층 계급들이다. 이것은 워커가 여성해방의 능력에 있어서 문자능력과 교육을 중요시하는 이유이다(Wills, 110).

아프리카는 미국흑인에게 기원의 땅 상실된 자존의 궤적으로서 상징적 가치가있다. 워커는 의도적으로 흑인의 민족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아프리카를 사용하였다. 네티가 전해온 올링카족 특유의 신화는 흑인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백인 중심의 인종적 체계모니를 전복시킨다. 즉 올링카 족은 흑인이 본래 백인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으며 성경의 아담은 첫 번째 인간이 아니라 첫 번째 백인 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아담이전의 모든 인간은 흑인 이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백인 아이들이 태어나 계속 죽었고 이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남아 쫓겨난 최초의 백인이 아담이라는 것이다.(280)

기독교에서 신이 인간을 에덴동산 밖으로 쫓아내었다는 기록은 그들이 백인 아이들을 마을에서 쫓아낸 이야기와 일치한다. 네티는 편지에서 백인이 흑인들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올링카 족의 신화를 들려준다.

They[The Olinka]say everybody before Adam was black, Then one day

some woman they just right away kill, come out with this colorless baby. they thought at first it was something she ate But then another one had one and also the woman start to have twins. So the people start to put the white babies and the twins to death. So really Adam wasn't even the first white man. He was just the first one the people didn't kill. (280)

네티의 올링카족에 대한 이야기는 미국사회와 더불어 가부장적 성적 억압의 보편성을 보여준다. 일부다처제의 올링카 부족 여자들은 동물과 사람의 무늬를 그려 넣은 아름다운 이부자리를 만드는데 여러 여성들이 협력 하여 작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일을 통해 여성들 간의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교육받은 여성인 네티는 표준영어로 편지를 쓴다. 그녀는 책에서 아프리카의 탐욕스런 소수가 돈을 받고 형제자매 들을 노예로 팔았다는 것과 수백만의 건강한 아프리카인들이 유럽국가 들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어 갔다는 것을 배운다. 그러나 아프리카가 한때 유럽문화보다도 훨씬 더 탁월했다는 것도 알게 된다.

네티는 편지에서 쥘리의 친아버지로 알고 있던 알폰소가 사실 의붓아버지란 사실을 알려주면서 쥘리가 정신적 압박감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기도 한다.

한편 쥘리는 작품의 초반부에서 침묵을 강요받던 상태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를 찾게 되었고 그 침묵을 깨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었다. 위커는 자매애에 기초한 여성들의 결속이야말로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흑인 여성들에게 중요한 창조 작업들 중의 하나로 퀘트 만들기를 들 수 있다. 이는 조각조각 이불을 꿰매어 전체의 이불을 만드는 것으로 하나하나의 조각보가 마치 각각의 편지글들과 같은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체성의 개념과도

연관이 된다.

백인 남성의 시각에서 이중으로 소외받는 흑인여성의 경험은 그럼에도 자기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배자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고통을 승화시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그런 예로는 흑인들의 음악, 재즈, 블루스, 쿼텅, 요리하기, 정원 가꾸기 등 매우 평범한 것들이다. 백인 남성의 시각에서 보면 여자는 우발적인 존재이다.

그녀는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매애를 강조한다. 또한 그녀는 동성애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여성들 간의 우애 쉘리와 셔그의 관계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 네티, 소피아, 스킵과의 연대를 통해 쉘리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가를 살펴보겠다. 그래서 이들과의 인간관계는 쉘리의 성장과 안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가 남성과 여성에게 부과한 고정되고 부자연스런 역할과 정의들을 변화시키는 관념들을 보여준다. 먼저 하르포의 아내 소피아를 살펴보면 도전 정신과 저항정신이 뛰어나다. 소피아는 억압자에 대한 흑인 여성의 비굴한 복종을 강요하는 가부장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요구에 따를 것을 거부하는 쉘리가 아는 최초의 흑인 여성이었다(Berlant, 843). 그러나 깊은 가부장제의 의식에 사로잡혀있던 하르포는 쉘리와 같은 지배복종의 관계를 소피아에게 요구한다.

자신을 억압하던 모든 것에 저항하던 소피아는 결국 백인사회의 인종적 억압에 침묵을 강요당한 채 시장 집에서 하녀로 일하게 되고 그 때문에 자녀들과 만나지 못하게 된다. 그럼에도 소피아는 강한 자의식과 용기를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소피아는 흑인 남성사회에서 여성에게 금기시되는 도전과 저항의 대표적인 본보기이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취급에 맞서 싸우는 소피아의 강인함은 쉘리에게 성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억압에 강하게 저항하는 저항정신의 모델을 제공 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의 동생 네티도 그녀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큰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네티와 썰리는 약 30년간 헤어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네티가 아프리카에 가서 썰리에게 보낸 편지들은 그녀의 삶에 위로가 된다. 그리고 사고의 폭을 확대시켜준다. 썰리는 네티가 의붓아버지의 성적 표적이 된 것을 알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누군가와 결혼하기를 바라고 그런 그녀를 위해 썰리는 모성애적인 애정으로 자신이 희생한다. 네티는 썰리가 미스터-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것을 보고 당당히 맞서 싸우라고 충고한다.

썰리와 네티의 편지왕래의 단절은 미스터-에 의한 방해에 있었다. 그런데 그 후 십여 년 후 셔그와 함께 동생 네티의 편지들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썰리와 네티의 편지는 대조를 이룬다. 썰리는 비표준 흑인 영어를 사용하지만 네티는 정확한 표준영어를 사용한다. 네티의 편지는 역사적인 상황제시를 통해서 미국흑인과 아프리카 동족사이의 역사적 문화적 연결고리를 알리는 문학적 장치이다. 아프리카 올링카족의 관습 종교 의식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썰리에게 일깨워준다.

이런 관점에서 네티의 편지는 작품의 주된 관심사를 계속해서 보여준다. 또한 블루스가수이자 미스터-의 전처인 셔그는 흑인 사회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모델이자 촉매로서 등장한다. 그것은 썰리가 블루스가수 셔그와의 자매애로 자아실현을 이룬다는 것이다. 셔그는 성적 육체적 억압에서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즐기는 여성이다. 흑인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여성을 성적 대상이나 노동을 위한 노예로만 여긴다. 이런 규칙에서 벗어난 셔그는 추방자이다.

썰리는 자아 상실의 상태에서 신에게 썼던 편지에 비해서 형식상 더 길고 인간미 넘치는 편지를 네티에게 쓰면서 인간적으로 성숙해간다. 어떤 의미에서 이 소설은 한 흑인소녀 썰리의 성장소설 이라고도 할 수 있다.

쉴리의 친아버지는 백인들의 린치를 당해 사망하고 계부로부터 당한 어두운 과거의 기간동안 신은 그녀를 외면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신에게 쓰는 편지를 중단하고 대신 네티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편지의 대상이 신에서 네티로 전환된 것은 쉴리의 삶에 있어서 성장과 변화를 상징 한다고 헨더슨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Henderson, 74).

백인 남성중심의 기독교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아프리카의 선교 활동에서 허구성과 위선을 목격하면서 주체적인 종교관을 확립한 네티의 각성과 같은 것이다. 네티의 편지는 올링카 부족의 고유한 토착신앙과 부족여성들이 형성하고 있는 강한 자매애와 같은 긍정적인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쉴리가 흑인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되찾고 아프리카에서의 간접체험을 통해 인식의 폭을 넓힌다. 네티 스스로가 왜곡된 신의 모습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적이고 내적인 신의 모습을 발견해 쉴리에게 기독교의 왜곡된 신의 모습을 재확인 시켜 줌으로써 쉴리가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신의 이미지를 재창조하는 데 기여한다고 월은 이야기하고 있다(Wall, 89).

쉴리는 셔그에게 모성애를 느끼게 된다. 사진을 통해 쉴리는 셔그의 신비로운 매력에 사로잡힌다. 병든 그녀를 돌보아주고 간호해주는 쉴리는 셔그를 마치 그녀의 잃어버린 아이를 떠올리며 딸을 돌보듯이 정성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빗겨주고 돌보아준다. 이런 애정은 쉴리와 셔그를 자매애로 이어주었다. 그 바탕에는 모성애가 있다.

쉴리와 셔그는 서로 모성적 감정에서 동성애로 발전하고 있다. 이들의 동성애는 단순히 성적인 측면보다는 자매애와 정신적 유대가 더 큰 부분을 차지하며 쉴리가 자신의 정체성 확립 자매애와 조화로운 전체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해준다. 셔그를 통해 쉴리는 비로소 육체의 가치와 육체의 기쁨의 소중한 자기애를 깨닫게 된다. 쉴리의 자아발견도 셔그의 도움으로 육체적 성적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육체와 가치를 인정하는 데

서 시작되었다. 셔그는 쥘리에게 더 이상 자신의 육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셔그의 이런 주장은 남성과 성관계 유무로 여성의 순결성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삶을 제한하고 여성에 대한 지배와 억압을 가해온 가부장사회의 이념적 정치적 기초에 대한 위협이며 남성과의 성관계 여부가 아닌 여성의 기쁨과 경험을 중요시 하였다는 면에서 대단히 새로운 개념이다.

성에 관한 한 셔그의 도움으로 육체의 가치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면서 쥘리는 셔그와 상호적이며 평등한 동성 연인의 관계를 유지하며 육체적 기쁨을 경험하며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

셔그는 쥘리의 보살핌을 받는 동안 떠오른 악상에 쥘리의 이름을 따서 만든 노래인 “Miss Celie's song”을 불러주는 순간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자신의 이름의 가치를 잊고 살아온 쥘리는 셔그가 자신을 위한 노래를 불러주자 “first time somebody made something and name it after me”라고 고백한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잊은 채 자아상실의 위기에 직면한 쥘리에게 셔그는 그녀의 이름을 되찾아준다. 자아상실을 강요당한 채 살아왔던 쥘리에게 셔그는 그녀의 이름을 되찾아준다. 자아의 상실을 강요당한 채 살아왔던 쥘리에게 셔그는 그녀의 이름을 되찾아준다는 것은 그녀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는 지배자의 규칙으로 지배자에게 폭력으로 반항하는 것은 무모한 것임을 소피아에게서 느끼고 손에 면도칼대신 바늘을 들고 바느질을 시도한다. 그런데 이 바느질은 쥘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를 제공한다. 후에 이같은 쥘리의 취미는 바지 만드는 일로 발전하고 쥘리의 인생에 분노와 공격성을 창조와 자립으로 이끌어준다. 여기서 위커는 보통의 흑인여성들이 인종과 성의 억압으로 오욕과 침묵의 세월을 보내왔음에도 그러한 삶 속에서 예술적인 창조력을 발휘하고 계승해왔음을 보여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워커는 가정의 일상용품들을 이용해서 조각이 불 만들기와 정원 가꾸기, 요리, 노래 등에서, 자신의 억압과 분노를 예술적 창조로 승화시키는 흑인 여성들의 삶을 보여 주고 있다.

쉴리에게 신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이며 일정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고 모든 인간과 사물의 내부에 존재한다는 범신론에 가까운 그녀 자신의 종교관을 피력한다. 서그는 신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인간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보다 더 인간에 가까운 존재임을 쉴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깨달음은 쉴리에게 독립적인 정체성 확립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

2. 인종과 성차

이 작품의 주인공인 썰리는 주로 성적인 학대와 억압에 관한 문제로 고통을 겪는 반면에 주변여성 인물들인 소피아(썰리의 며느리), 네티, 메리 아그네스(하르포의 정부)에게서는 인종적인 갈등이 더욱 많이 드러나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의도하는 주제인, 성적억압과 인종적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흑인 사회 내의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그래서 백인 남성중심의 지배 문화의 허위성과 부당함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소피아는 남편인 앨버트의 아들 하르포의 아내로서 썰리의 며느리이다. 소피아는 그녀의 남편 하르포와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한다. 또한 그녀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얽매이지 않는다. 가사일을 좋아하는 하르포와 사냥 집수리 등을 좋아하는 소피아는 역할의 전환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깊은 가부장제의 의식에 사로잡혀있던 하르포는 썰리와 같은 지배복종의 관계를 소피아에게 요구한다. 소피아는 강인하고 폭력적이며 용감한 흑인여성이다. 소피아가 그녀의 아이들을 데리고 시내에 나갔을 때 백인 시장부부가 그녀에게 하녀가 되어달라고 부탁한다. 소피아는 그 말에 Hell no 라고 단호히 거절한다. 그리고 시장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그 결과 소피아는 백인 경찰들에게 신기하게 죽지 않을 정도의 구타를 당한다. 흑인사회에서 남성에게 힘으로 반항하던 그녀는 무력화된다.

소피아를 보고 나는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의아할 지경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머리를 부숴놓고 갈비뼈를 부러 뜨렸다. 그들은 그녀의 코 한 쪽이 떨어져 나가도록 찢어 놓았다. 그들은 그녀의 한쪽 눈을 멀게 했다. 그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있었다. 그녀의 혀는 내 팔뚝만큼이나 부어서, 이 사이로 고무 조각 같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가지색깔 그 자체였다.

When I see Sofia I don't know why she still alive. They crack her skull, they crack her ribs. They tear her nose loose on one side. They blind her in one eye. She swole from head to foot. Her tongue the size of my arm, it stick out tween her teef like a piece of rubber. She can't talk. And she just about the color of eggplant.(91-92)

소피아는 결국 백인사회의 인종억압에 의해 교도소에서 10여 년간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빨래를 하며 침묵을 강요당한다.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가능한 투쟁이 백인 사회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것임을 알게 된다. 지배 체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소피아에게 패배와 굴복만을 주었다. 이로써 백인 사회의 위선을 파헤치고 있다.

소피아는 쉴리에게 성적 인종적 억압에 용감히 대응하는 저항정신과 도전정신을 일깨워준다. 위커는 노예 폐지론자이자 연설가이며 여권 운동가이며 사회사업가인 소저너 트루쓰(Sojourner Truth)의 강한 자의식과 용기를 가진 흑인 여성의 모습을 소피아에게 투입시켜 자신의 정신적 원조자인 그녀를 알린다.

공적으로 말해 1940년 7월 4일은 미국의 축제일인 독립기념일이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의 독립기념일은 쉴리의 개인적 자유의 비준이다. 미국의 사람들의 탄생 독립기념일은 앵글로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해결해준다. 그러나 이것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정체성은 해결해 주지 않는다.

쉴리는 주체적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다시 말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그런 국가적인 문화는 우머니스트에 따라서 작동된다. 반면에 정치적인 언어는 정치적인 가치와 가부장적인 힘과 관련이 있다. 미에 관한 이야기는 여자들 사이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다. 위커는 작품의 의도를

전형적 가부장제에 관심을 갖고 다룬 역사소설 이라고 한다. 위커는 그 소설을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고백의 형태로 지방색이 있으며 자서전적 내용의 개인적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역사소설의 지평을 증대시킨다. 이런 관점에서 이 소설은 교육적이다. 또한 미국 흑인들의 다양한 경험을 포함한다.

“아프리카의” 라는 용어는 “미국인” 이라는 것을 부정한다. 정치적 생명은 소설 속 에 나온다. 썰리는 많은 미국인들처럼 경쟁관계를 배운다. 공립학교에서 미국인의 정체성의 이데올로기는 바로 학생들이 마시는 공기처럼 전달된다. 『칼라 퍼플』은 국가주의 그 자체를 문제화한다. 앵글로-아메리칸과 아프로-어메리칸 둘 다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썰리와 네티는 공립학교에 유포된 미국 국가정체성의 신화와 만난다.

네티 이야기하기를, 아메리카 누가 발견 했는 지 알아 두려면 오이(cucumber) 생각해. 콜럼부스(columbus) 이름 오이하고 소리 비슷하니까. 나 콜럼부스 얘기 초등학교 1학년때 잔뜩 배웠지만 금방 새까맣게 잊어 버렸어요. 네티가 그러는데 콜럼부스는 ‘깨끗한 배(풀이 Neater, 배의 본디 이름은 니나, 즉 Nina였음)’ 하고 ‘베드로 호(풀이 Peter 본디 이름은 Pinta 호였음)’ 와 ‘산토 마르이트(풀이 산타마리아호)’ 라고 이름 부친 배 타고 왔어요. 인디언들 그에게 어찌나 착하게 해 주었는지 몇 명 강제로 데리고 고향 돌아가 여왕한테 시중들게 했다는 군

The way you know who discover America, Nettie say, is think bout cucumbers. That what Columbus sound like. I learned all about Columbus in first grade, but look like he the first thing I forgot. She say Columbus come here in boats call the Neater, the Peter, and the Santomareater. Indians so nice to him he force a bunch of’ em back home with him to wait on the queen.(10)

쉴리는 이 국가 신화에 의해 조종당하지 않는다. 이 작품은 흑인 미국인의 고대 미국의 신화가 쉴리에게는 부적절하게 보인다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국가의 역사적 정체성을 문제화한다. 그녀의 미국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는 쉴리가 사는 곳에 배우지 못한 토속 흑인영어 구어체의 생명력의 중요함 뿐 아니라 여러 세대를 통해 국가 자체의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작품에서 쉴리는 아프리카로 선교 활동을 하러 간 네티와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자매애로써 서로의 삶에 힘과 위로를 준다. 네티의 편지는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을 간접 체험케 함으로 흑인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인식의 폭을 넓혀준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올링카 부족여성들의 고통을 전달하고 영국 제국주의의 잔인함을 이야기함으로써 작품의 주제인 가부장제의 억압성과 백인과 남성 문화의 부당성을 반복한다.

또한 여성의 경험을 사적인 문제로 보려는 백인 남성 중심의 사고에 맞서 흑인 여성 한 개인의 삶이 사회, 역사, 정치, 경제의 공적인 차원으로 연결되며 흑인 여성들의 유대감을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으며 쉴리가 친아버지라고 알고 있었던 아버지가 의붓아버지란 사실을 알게 해주며 심리적 중압감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또 앞에서 언급된 켈트는 여성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켈트는 여성의 표현을 억압하는 세계에서 여성의 공동체를 창조하는 방식으로 기능”(Byerman, 61)함으로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극복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켈트는 작품 속에서 한편 한편의 글쓰기와 동일하다. 따라서 여성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조각보(켈트)를 만들면서 자신들의 고통 기쁨들을 나누며 자신들만의 유대를 느끼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있다.

작품 곳곳에 등장하는 모성애의 흔적은 여성의 모성애에 중요한 가치

를 두는 작가의 의지의 반영이다. 워커는 모성애를 소모적이라고 보는 기존의 페미니스트를 비난한다. 여성의 모성애를 억압적 신화로 보는 기존의 견해와는 다르게 워커는 그것을 여성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요소로 받아들인다. 어머니로서 부과되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어머니가 됨으로써 감수하는 사회활동의 제한과 같은 장애들을 딸에 대한 사랑으로 극복한 워커는 한때 자신의 존재를 인종 차별주의자나 성 차별주의자 이상의 적으로 간주 했던 자신의 오류를 인정한다. 모성애의 가치를 작품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사용하는 것은 워커를 다른 페미니스트들과 구별시켜 준다.

흑인 여성들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다. 흑인 여성들은 착취당하고 소외당했다. 19세기 산업자본주의로 전환하는 시기에 백인 들은 독립적인 핵가족 단위를 받아들인 반면 흑인들은 노예상태에 있었다. 흑인들은 노예제도의 비인간적인 영향에 저항하기 위하여 연장된 친척으로서 흑인 가족 개념을 만들었고 흑인 들은 자신들을 연장된 가족 공동체로 생각했다. 따라서 흑인 여성에게 가족의 영역은 핵가족을 넘어서 친척 공동체 관계에 포함되는 것이었다. 아프리카 여성이 자신의 가정과 아이들을 대신해 일했던 반면 흑인 노예여성의 노동은 그들의 주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미국 흑인 여성이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정치적으로 힘없는 노동 단위로서 일하기를 강요당했다는 것이다. 미국 흑인들은 육체노동이나 지적인 것과는 상관없는 직업, 더러운 직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흑인 남성에게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많은 흑인 가족들이 흑인 남성 혼자만의 임금으로는 생존 할 수 없었다. 콜린스는 노예해방 이후 적어도 75년간 많은 흑인 가족이 남부 농업에 종사 했다고 한다.

이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의 사회참여가 부추겨 질 때 백인여성들과

흑인 여성들이 일터에서 같이 일하게 되었다. 백인 여성들은 하기 싫은 일을 거부하거나,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 인종차별적인 위계를 유지하기를 바랐다. 따라서 항상 힘들고 더러운 일들은 흑인 여성들이 맡았고 월급은 백인 여성들보다 낮았다. 백인 여성들은 흑인 여성들과 함께 일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작업장, 샤워, 편의 시설에서 흑인 여성들과 분리되기를 바랐다. 백인 여성들이 자기들의 불만을 털어 놓는 통로로 페미니즘을 전유했음이 드러나게 된다.

페미니스트 운동에서의 인종차별은 세 가지 측면에서 드러난다. 첫째는 언어적 차원에서 비백인 여성들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 배제한다는 것이다. 백인 여성들은 자신을 언급할 때 그냥 여성이라고 하고 있다. 둘째 백인 여성과 비백인 여성들의 경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여성의 경험이 같다고 상정한다. 백인 여성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모든 여성들의 경험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다른 설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셋째 백인 여성들이 전혀 비백인 여성들의 경험과 의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흑인 여성들이 자신의 인종적인 정체성을 인식해야 하는 반면 백인 여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힘 그것이 인종 차별주의이다. 우세한 인종은 자신들의 경험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 반면 억압 받는 인종은 그들의 인종적 정체감을 인식해야한다. 사실 많은 흑인 여성들이 페미니스트 운동에서 인종차별문제가 진지하게 고려되길 희망했다. 인종차별은 그동안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을 이분화 시켰고 서로의 갈등을 깊어지게 했다. 따라서 인종차별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페미니스트 운동이 모든 여성들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분리는 백인 남성이 의도적으로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사이의 적대감과 분열을 야기 시킴으로써 일어났다는 것이다.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들 간의 적대감과 갈등은 단지 여성운동에서 드러난 인종차별 때문

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그룹간의 질투, 부러움, 경쟁, 그리고 분노의 오래된 결과였다. 노예제도 이전의 가부장제 하에서는 백인 여성이 가장 낮은 계층이었지만 노예제도로 인해 그들은 새로운 지위를 경험하게 되었다. 백인 여성들은 자신들을 흑인들과 비교하고 분리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확립했다. 따라서 백인 여성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노예들의 복종을 요구했다.

여기서 워커는 우머니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데 그녀에 의하면 우머니스트란 워커의 수필집 *우리어머니의 정원을 찾아서* :우머니스트 산문 (*In search of our mother's gardens : Womanist prose*)에 나타나 있다.

우머니스트는 첫째 흑인들의 “너는 여자같이 행동해”라는 표현으로부터 나온 말로 소녀같이 경박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하거나 의지가 굳은 행동으로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즉 사회의 기본 통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욱 깊이 근원을 추구하며 생각하는 흑인 페미니스트나 유색인종 페미니스트 들이라 할 수 있으며

둘째 우머니스트란 다른 여성을 성적으로 그리고 혹은 성과 관계없이 사랑하고 여성의 문화 여성의 감정적 유연성을 선호하고 감사해하는 여성을 의미이며

셋째 그녀가 말하는 우머니스트는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전체성과 생존에 기여를 하는 여성으로서 이것을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엄마 왜 우리들은 갈색 분홍색 노란색인데 우리사촌들은 하얗거나

베이지색이거나 검어요? 라는 질문에 유색인종은 모든 색의 꽃이 피어 있는 꽃밭과 같은 거란다.(Walker(1983), 6)

라고 대답하는 보편주의자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우머니스트들이란 단적으로 말해서 음악을 사랑하고 춤도 사랑하고 달도 사랑하고 영혼도 사랑하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민속적인 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네티의 편지는 유럽 자본주의 국가들이 제국주의 사회의 경제적 착취를 위한 선행 작업을 위해 아프리카 대륙에서 저지르는 횡포의 기록이다. 네티는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이스라엘인들을 노예화한 이집트인들은 흑인들이었다라고 설명해준다. 할렘 사람들의 선함과 관대함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과 위엄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서구의 대표적인 철학인 데카르트의 철학은 더더욱 이분법적인 사고, 예컨대 신의 초월과 내재, 정신과 신체, 남성과 여성 백인과 유색인, 기독교와 이교도 등으로 구분 짓는 습관, 또 후자에 대한 전자의 임의적인 우월성을 구분 짓는다. 타자의 범주는 의식 자체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이다. 태고의 원시사회에서나 가장 오래된 신화에서도 동일자와 타자의 이중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소피아는 그녀가 하녀로 일하는 백인들이 서투르고 불행하다고 한다. 비록 그녀가 시장부부의 하녀로 일하지만 그녀는 시장부인에게 운전 하는 법을 가르친다. 소피아의 유능함과 백인 시장부인의 서투름은 대조를 이룬다. 백인시장부인의 운전의 서투름은 그 장면을 지켜보는 소피아의 가족들을 웃게 만든다. 그녀는 엔진을 고장 내며 멈춘다.

쉴리는 네티로부터 창세기와 대체되는 이야기를 듣는다. 최초의 사람들은 흑인이었고 첫 백인들은, 색소결핍증에 걸린 아이들이었고 그들은 색소가 없었기 때문에 추방당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아이들이었음을 알고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들은 흑인 들을 죽였을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 끼리도 죽인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했다. 오늘날 그들이 흑인들에게 하듯이, 결국 그들은 뱀으로 변화되어서 백인들이 발

견되는 곳에는 어디서나 오늘날 그들이 하듯이 백인이 아닌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다. 쉘리의 자각은 그녀 자신이 흑인으로서 그녀자신도 창조의 일부분이며 그 자체로서 놀라운 존재이며 자기 자신을 긍정함을 의미한다.

또한 쉘리의 친아버지는 흑인들이 백인들보다 유능하고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들이다. 쉘리의 친아버지는 백인들 보다 사업경영을 탁월하게 잘 했다. 백인들은 공정한 경쟁으로는 그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데 실망감을 느끼고 쉘리의 친아버지를 야만적인 폭력으로 사망하게 한다.

외붓아버지 알폰소는 백인들과 이익을 나눔으로써 백인을 기술적으로 다룰 수 있는 충분한 계략이 있었다. 알폰소는 심지어 백인 노동력을 이용하면서 흑인 자본가의 태도를 취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의 오래된 가게를 시내에 열 때 나는 백인 소년을 고용했다. 그리고 좋은 것은 백인들의 돈으로 그 애를 샀다는 거야.”

백인 남성들이 가졌던 권력은 일반적인 유대와 연합을 부정하고 근본적으로 이분하는 성질의 것이다. 흑인 공동체 내에서는 성차별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인종차별에만 주의를 기울여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 남성의 성차별주의는 미국 노예 시절부터 존재해왔다. 흑인 공동체 특히 흑인 민권 운동을 주도한 흑인 남성들은 인종차별만이 유일한 억압으로 보았고 성차별을 인정하는 것이 흑인들의 관심을 흐뜨리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 흑인 남성들은 백인 남성이 가진 특권을 부러워했고 그러한 힘을 가지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들은 성차별적인 위계질서 자체를 비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공동체의 한 질서로 받아들인 것이다. 19세기에 많은 흑인들이 백인 가부장사회가 정의한 남성성을 받아 들였다. 흑인 남성들은 자신들에게 이런 기회가 제한되는 것에 분노를 느끼면서 자신들이 흑인

가정의 지배자라는 것을 시위함으로써 자신의 남성다움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다.

인종차별주의에도 불구하고 흑인 남성과 백인 남성 간에 연대가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가부장제와 그 아래서 자행되는 폭력에 대한 숭배이다(Hooks, 28). 가부장 사회에서 모든 남성들은 단순히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힘 있고 특권을 선천적으로 갖는다는 신화를 내면화 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여성들 보다 지위가 높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남성들은 자신에게 복종적이지 않은 여성들을 향해 적대감을 갖고 자신이 우위임을 증명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다.

특히 자본주의 가부장제는 비인간적인 노동으로 인해 자신의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남성에게 그들이 스스로 특권 있는 자로 보도록 부추김으로써 더욱 여성에 대한 폭력을 촉진시킨다. 가부장제는 억압받는 여성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희생당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억압자인 남성 역시 비인간화되게 한다. 남성들은 자신의 적을 여성이라고 사회화 당한 결과 다른 억압적인 세력의 본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투쟁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이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 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이 작품에서 쉘리의 남편 미스터-가 그녀의 가난에 대해 말한다. 앨버트는 가난해 보이지 않는다. 그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 산다. 가끔 그는 말쑥한 차림으로 말을 타고 간다. 그는 셔그를 집에 데리고 와서 경제적으로 보살펴주고 음식도 만들어준다. 그러나 쉘리에게는 어떤 경제적 독립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는 결코 그녀의 돈에 대한 선호나 필요를 생각하지 않는다. 또는 적어도 그녀는 가난하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문자 그대로 가난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쉘리가 그녀의 딸 올리비아와 헤어졌을 때 어린 올리비아를 가게에서 우연히 잠깐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아무것도 사줄 수 없는 무능에 대해서 속으로 슬퍼한다.

“나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가난하다.” 그리고 쥘리는 시누이가 그녀에게 변변한 옷도 없는 것에 대해 얘기하자 부끄러움을 느낀다.

흑인 여성의 노동은 미국자본주의 하에서 계속 착취 되어 왔다. 흑인 여성들이 하는 일에 의해 그녀들의 가치가 평가 절하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중의 억압을 받아왔다. 그런 상황에서 쥘리, 소피아, 네티, 메리 아그네스 등의 여성들이 인종과 성적인 억압을 여하히 극복하려는 가를 보여준다. 이로 미루어 보건데 인종과 성문제 뿐 아니라 계급의 문제도 간과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3. 정체성 회복

쉴리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셔그의 제안으로 바지 만들기를 하면 서부터이다. 쉴리가 앨버트를 떠나 셔그와 함께 멤피스로 가서 바지를 만들기 시작한다. 쉴리가 네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일들의 즐거움에 관해 들려준다.

나는 식당에 앉아서 바지를 만들고 또 만들어. 세상에 있는 모든 색깔과 모든 크기의 바지들을 만들어. 내가 너무 많은 바지를 만든다고 셔그는 나를 놀려.

I sit in the dining room making pants after pants. I got pants now in every color and size under the sun. I make so many pants Shug tease me. (298)

쉴리가 셔그에게 완벽한 바지를 만들어주고 또 셔그의 밴드의 멤버들에게 바지를 만들어준 후 그녀의 사업은 번창한다. 자본주의를 잘 아는 셔그는 쉴리에게 광고하라고 한다. 가격을 좀 더 올리고 쉴리가 뒤에서 디자인 하는 동안 자르고 바느질할 여자들을 고용하라고 조언해준다. 쉴리는 그렇게 한다. 그리고 성공한다.

가난한 여인 쉴리가 소득과 주소가 있는 기업가가 되었다. 마침내 바지 만들기로 얻은 부유함이 가족의 부동산을 물려받음으로 인해 증대된다. 녀마 같은 옷을 입던 쉴리가 부유해지자, 제왕의 색인 자주색을 선택한다. 이것은 여성의 제왕적 이미지, 자아추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쉴리는 못 생겼다. 여자가 아름답거나 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녀의 매력(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음)을 보여주는 것과 관계가 있다. 쉴

리는 결국 그녀의 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그녀의 내적 아름다움이 너무 눈부셔서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추함을 보지 못한다. 쉘리에게 그녀의 정체성 회복의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은 셔그이다. 이 두 여성간의 사랑의 교환은 쉘리의 정체성 회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셔그의 사진에 대한 쉘리의 반응은 그들이 나중에 발전하게 될 사랑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녀는 내가 본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워. 그녀는 우리 어머니보다도 더 예뻐.
그녀는 나보다도 만 배는 더 예뻐.

The most beautiful woman I ever saw. She more pretty then my mama.
She bout ten thousand times more prettier then me.

셔그가 시내에서 노래를 부르기로 되었을 때 쉘리는 단지 그녀를 보고자 거기에 간다. 쉘리는 셔그가 아플 때 마치 종교적으로 헌신적으로 돌보아준다. 그녀가 셔그의 몸을 씻겨줄 때 그녀는 마치 기도 하고 있는 듯이 느낀다. 쉘리의 따뜻한 간호 덕분에 다시 노래 부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쉘리에게 노래를 바친다. 제목은 ‘Miss. Celie의 노래’ 였다.

쉘리에게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그녀의 존재가 공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고 나의 이름을 위해서 노래를 지어주는 것은 처음이다.” 쉘리와 셔그의 결합은 성적인, 자매간의, 친구간의, 인간적인, 정신적인 모든 사랑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쉘리는 셔그의 나체를 처음 보았을 때 마치 남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낀다. 셔그는 쉘리에게 여성의 성의 신비에 관해 이야기 한다. 셔그와의 육체적인 접촉에서 쉘리는 성적인 스틸을 느낀다. 그것은 미스터-에

게서 느끼지 못하던 것이다. 셔그와의 사랑관계를 통해서 찢리는 성적인 즐거움에 관해 크게 깨닫는다. 그리고 그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느낀다. 처음에 그녀는 자신을 추하다고 생각했다가 셔그와의 사랑관계가 지난 후에 셔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워커는 셔그를 가장 전형적인 우머니스트로 만들었다. 그녀는 백인 페미니즘과는 다른 흑인 여성들의 페미니즘을 표현하는 말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머니즘 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장본인이기도 하였다. 워커의 정의는 미국흑인 여성, 윤리학자들, 비평가들,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 열띤 대화를 불붙게 했고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과 연결되게 했다.

워커는 우머니스트라는 용어를 만든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우머니스트란 단어를 유색인종 여성 특히 아프리카인 후예인 여성들을 위해 만들었다. 게다가 실제로 아프리카 대륙은 모든 인류의 고향이기 때문에 모든 여성은 아프리카의 후손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또한 그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린 여성의 권리를 아주 깊게 신뢰 해야만 한다고 말이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마땅히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었다는 데 대한 확실한 믿음 우리의 몇 대 조 할머니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심층적인 믿음 우리의 딸들이 강하고 자유로워 져야 한다는데 대한 깊은 믿음 우리는 일부러 오해하고 호되게 꾸짖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의 위신이 깎인다고 하더라도 또 실제로 그렇지만 우리는 이를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깊은 믿음을 지녀야 한다고 말이다”

잔망스런 흑인 소녀들에게 조롱조로 쓰여졌던 우머니즘이라는 말을 여성의 힘을 상징하는 말로 해방시킨다. 워커는 우머니스트를 어린아이 처럼 남자의 보호를 받지 않으려는 여성,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투쟁하며 진정한 성인으로서 행동하는 여성이라고

정의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남자들은 항상 모든 실권을 장악하여 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부장제 사회의 초기부터 남자들은 여자를 종속 상태에 유지시키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했다. 남자들이 만든 법률은 여자에게 불리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여자는 구체적으로 타자(The other)로 만들어 졌다. 이런 조건은 남성의 경제적 이익에 유리 하였다.

의식은 제각기 남을 노예상태로 전락시킴으로써 자기완성을 시도한다. 노예 중에는 여자도 있었지만 자유여성 즉 종교적 사회적 권위를 누리는 여자도 끊임없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자들은 남자의 지배권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남자는 자기를 객체로 변형 시키려는 반항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래서 여자는 결코 본질로 돌아가지 못하는 비 본질처럼 상호성이 없는 타자처럼 보였다고 하였다.

천지창조의 모든 신화는 남성에게 이런 귀중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 여자가 되기를 좋아하는 남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모든 남자는 여자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 남자는 이 세상에 자기의 존재가 필연적인 사실이며 권리이고 여자의 존재는 단순한 하나의 우연이라고 태연하고 순진하게 다시 한번 더 강조 하고 있다. 여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종교도 시도 가지고 있지 않다. 여자들이 숭배하는 신도 남성들에 의해 만들어 졌다. 여자는 오로지 남자와의 관계에서만 규정된다. 육체, 육체적 쾌락과 위협이 여자이다.

그런가하면 남자들은 어떤가? 그들은 세계를 자신들의 관점에서 묘사하고 그 관점을 절대적인 진리와 혼동하고 있다. 여자는 이브인 동시에 성모 마리아이다. 여자는 우상이자 하녀이며 생명의 원천이자 암흑의 세력이다. 여자는 언제나 타자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여자라는 것의 애매성은 타자라는 관념의 애매성 바로 그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타자와

의 관계에서 규정되는 한 인간 조건의 애매성이다. 이미 말한바와 같이 타자란 악이다. 그러나 그것이 선에게 필요할 때는 선으로 된다. 나라는 존재는 남자를 통해서 전체에 도달한다. 그러나 나를 전체에서 분리시키는 것도 남자이다.

남자는 무한에의 문이기도 하고 나의 유한성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때문에 여자는 어떠한 고정된 개념도 구체화하지 못한다. 여자를 통해서 희망에서 실패로, 증오에서 사랑으로, 선에서 악으로, 악에서 선으로, 부단한 이행이 이루어진다. 어떠한 각도에서 여자를 보더라도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이 상반성이다. 여자가 세계의 애매한 원천이며 생명의 불가해한 생성이니 만큼 남자는 여자에 대하여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소설에서 네티는 처음에 남녀가 따로 살고 평화로웠던 에텐의 요람인 원시적인 아프리카를 기억한다. 비극은 남성이 여성의 거처를 침범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여성이 권위와 성실성을 잃었다고 한다. 그 후 더 큰 악이 지속 되었다. 고대 아프리카는 백인에게도 고향이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흰 백인의 피부는 내리쬐는 햇볕과 태양열을 감당 할 수 없어서 그 곳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상징적이지만 페르세우스가 흑인 아프리카의 여신인 메두사를 퇴치한 그리스 신화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사실상 흑인 여성의 삶의 경험 그리고 문화는 백인 남성위주의 세계 속에서 관심사 밖이었고 알려지지도 않았으며 불가시적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엘리스 위커의 작품은 흑인 여성이 이루고 있는 흑인 문화를 널리 보급시키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있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

위커의 우머니스트는 백인 및 남성 중심문화를 공격하기위해 비이성적 요소 무의식적 요소 및 창조성이 풍부하고 자연과의 친화력을 구현하

는 데 중점을 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여성들을 전적으로 여성적 원칙과 동일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존의 여성적 원칙은 능동성이라는 남성의 원칙에 대비되어 수동성을 상징하고 있는 반면에 위커의 우머니스트 요소는 현실에 뛰어들어 체제의 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면모 즉 능동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커의 우머니스트는 여성들이 자신의 전체성, Wholeness 즉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위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남성들을 변화시켜 그들이 남성 중심적 편견과 미흡함을 극복하고 소위 여성적 속성을 겸비한 통합화된 남성으로 변모하는 데 촉매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위커의 이런 우머니스트 개념은 남성과 여성의 이분구조를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준다 해도 좋겠다. 엘리스 위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삶의 창조자이자 잉태자인 여성에게 지금보다 더 큰 숭배가 돌아가야 마땅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어떤 대륙에서건 우리여성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방과 홀대와 학대다. 우리는 이런 습성과 결별해야한다. 적어도 그런 자기존중이 커지리라는 의미가 된 것이다. 더불어 어떤 식의 사랑이 그러니까 여성과 평등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결핍이 아닌 풍성함이 넘쳐난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엔 남자만큼이나 많은 수백, 수천만의 여자들이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상상력을 남자에게만 한정시킨다는 건 너무나도 슬픈 일이다. 그러는 동안 인생은 지나가고 만다. 여자들은 깨어나야 한다. 남자란 우리가 고통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게다가 여자에게 닥쳐오는 이런 고통은 여자라는 존재를 창조할 때 고려되지도 않았던 것이다. 강인한 여성상이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지구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해졌고 여자를 적당히 돌봐주는 남자의 견해에 너무나 오염되어 버렸다.”

확실히 그녀는 사회에서 금지시킨 영역을 진실에 도달하는 길이나 과정으로 끊임없이 두드리며 파헤쳐왔다. 작품의 소재는 흑인 여성과 남

성, 혹은 부인과 아이들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표출시킨다. 위커는 우머니스트의 입장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성문제와 인종문제의 고통을 날카롭게 폭로한 것이다.

그녀는 칼라 퍼플을 쓰게 된 경위를 『어머니의 정원을 찾아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동생 루쓰와 함께 알고 있었던 삼각관계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숲 속을 걷고 있었다. 내 동생 루쓰가 “언니도 알다시피 어느 날 부인이(남편의) 또 다른 여성에게 속옷 한 벌을 달라고 요청 했어”라고 말했다.

즉각적으로 내가 마음속으로 쓰고 있던, 한 남자를 사랑하고 그 한 남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두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들 중 잃어버린 부분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왔다. 내가 머릿속에 구성하고 있던 이야기구조의 중심에 동생의 이 코멘트를 새겨 넣어 세심하게 균형을 잡아 품고 다녔다.

또한 『칼라 퍼플』이 역사소설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고 한 흑인 남자 비평가는 여성들은 절대로 역사소설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했다. 글쓰기를 시작한지 일년이 채 되지 않은 날, 딸이 캠프로 떠나던 날 마지막 페이지를 썼다.

이 작품에서 이해의 중심인물이라 할 수 있는 인물, 쉴리가 그녀의 추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얻는다는 주제는 앨버트가 그녀에게 대하는 태도의 변화로 다시 확인된다. 처음에는 그녀가 못 생겨서 아내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했으며 그녀를 학대하던 미스터가 이 소설의 말미에서 그녀의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대조를 이루고 있다. 좋은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나와 결혼 해 달라고 그는 프로포즈하고 있다.

셔그와 소피아는 강한 여인들이다. 여자들은 종종 남자들에 의해 잘못 취급받거나 희생당한다. 그런 희생자들 가운데는 쉴리의 어머니, 소피아의 어머니, 소피아, 스킵과 알버트의 전처와 쉴리 자신이 있다. 알버

트는 그의 아들 하르포에게 여자를 어떻게 정복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데 여자들을 다루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여자들이란 아이들과 같은 거야. 누가 윗사람인지 가르쳐야 해, 때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 썰리는 그와 같은 여자 희생자의 표본이다. 예를 들면 소피아의 어머니는 그 전에 그런 일들을 겪었다. 소피아는 썰리에게 그녀의 어머니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말하길 당신은 나의 엄마를 떠오르게 해요. 엄마는 아빠가 하라는 대로 복종 했죠.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녀는 결코 되묻지 않았어요. 그녀는 결코 자신을 위해 일어서지 않았어요. 그녀가 어린 우리들을 위해서 반항하면 그는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어요.

She say to tell the truth, you remind me of my mama. She under my daddy thumb. Naw, She under my daddy foot. Anything he say goes. She never say nothing back. She never stand up for herself. Try to make a little half stand sometime for the children but that always backfire. More she stand up for us, the harder time he gives her.(43)

그들은 남자들에게 지배 받기를 거절했다.

소피아는 하르포를 떠나는 데 그 이유는 개처럼 취급받기가 싫어서이다. 그녀가 거의 12년간 감옥에서 고통 받은 것은 시장과, 거만한 시장부인의 권위에 저항 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피아의 자매들은 크고 튼튼한 여자들이고 아마존 같아 보인다. 하르포의 정부인 스킵은 하르포가 그녀를 메리 아그네스라 부름으로써 그녀의 정체성과 권위를 회복했다.

우머니스트의 개념은 가장 명확하게 억압받던 썰리를 미스터와 동등하거나 혹은 더 강한 위치로 끌어 올리는 핵심 사상이 되고 있다.

썰리가 처음으로 만든 옷은 남자의 것과 관련되었으며 이는 그녀를

남자와 동등하게 만드는 자기주장의 상징이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쥘리가 주장하고자 한 자기주장의 이면에는 몇 가지 유의할만한 상징적인 행위들을 읽을 수 있겠다. 예컨대 벨 훅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남성 타자화의 상징 표현으로서 남자들이 함께 입을 수 있는 바지를 만듦으로 인해 여성과 남성들이 모두 다 강함을 더욱 더 나타낸다.” 이 소설의 말미에 쥘리에게 행하던 미스터의 지배는 끝이 난다.

그런데 쥘리는 셔그와 연대해서 그가 그녀에게 학대를 멈추도록 요구한다. 반면에 쥘리는 앨버트와 동등한 힘을 얻는다. 그가 그녀에게 다시 결혼 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녀는 거절한다. 대신에 그녀는 친구로 남아있기를 원한다.

자주색은 전통적으로 제왕의 색이다. 쥘리의 자주색은 셔그와의 사랑이며 누더기 옷에서 부유한 자주색 옷으로의 그녀의 자아 회복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앨버트와의 관계에서 궁극적인 힘을 얻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할 때에 알버트의 실재치 않는 그녀에 대한 말은 “나는 가난하고 흑인이고 못생기고 요리도 못하지만 나는 여기 있어요.”라고 모든 사람이 들도록 말한다. 그 의미는 대단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흑인 민권 운동에서 흑인여성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노예제도 이후 흑인 사회는 백인 가부장제를 내면화했다. 그리고 한편으로 흑인의 인종적 해방을 부르짖었다. 흑인 사회는 백인 사회의 규범을 받아들이면서 백인 사회체제를 타파해야겠다는 모순을 보였고 흑인 사회에서 흑인여성들은 무시 당해왔다. 가부장제는 계급적으로 이권을 가진 여성이 계급적으로 이권이 없는 여성을 억압하는 데 침묵하고 있었다.

이것은 백인남성과 백인여성이 백인우월주의와 백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연대한다는 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백인 사회에서 흑인 여성의 경험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스트와 우머니스트가 가부장제라는 용어에 대해서 재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Williams, 186).

특히 특정 문화에서의 미학적 가치가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문화권에서 유색 여성들이 백인 여성과 비슷한 이미지를 갖도록 그들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문화 안에서 하얀 히스패닉 여성이 검은 피부의 히스패닉 여성보다 선호되고 있음은 그 좋은 예이다.

엘리스 워커는 흑인여성의 운동이 흑인가족의 운동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머니스트는 자신을 개체적이고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으로 여긴다. 헤이스에 의하면 “백인 여성들의 페미니스트 운동은 피억압자들이 지배체제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었다” 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주인의 도구로는 결코 주인의 집을 허물지 못 하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변화 시키고자 한다면 성차별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주의와 계급차별주의도 밝혀내고 극복해야한다. 헤이스는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주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로의 다양성을 배우고 수용함으로써 창조적인 다양성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하였다.

워커는 인종과 성차별의 가혹한 억압과 그에 따른 극심한 좌절감에 극도로 시달리는 매우 비참한 생활을 극복하고 자유와 희망 그리고 창의력을 향유하기 위해 삶에서 어떤 변화와 성숙을 도모하며 우리에게 삶과 사회에 가장 이상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대 전제는 오로지 자기성숙에 있음을 제시해준다.

자기 성숙이란 “개인의 자주성, 자립 그리고 자아실현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철학,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치는 만물과 하나 되는 완전한 인간성이다.” 그녀는 억압적이고 부정적이고 궁핍한 생존여건 가운데서도 흑인여자들 스스로 삶을 변화 발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워커는 이 작품에서 자기를 현재의 자신 이상으로 변화 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삶의 본질은 오직 자기 삶에 있다고 주장한다.

나의 삶의 의무는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의 차이를 알아보는 일이다. 이 의무는 내가 언제 누구에 의해 학대당하고 있는가를 말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의무는 내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깨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의무는 내가 세계 공동체의 일부임을, 내가 어느 쪽에 가담했는가를 예의 주시함을, 그 쪽이 나에게 적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쪽으로 옮겨가느냐를 알아야 함을 의미한다. 얕이 살고, 삶은 사람과 일에 열중함이고 돌아다님이며, 세상을 내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 함이다. 적어도 이것이 나를 깨우쳐주었던 민권운동의 교훈이다.

Part of existence means to me is knowing the difference between what I am now and what I was then. It is being capable of looking after myself intellectually as well as financially. It is being able to tell when I am being wronged and by whom. It means being awake to protect myself and the ones I love. It means being a part of the world community, and being alert to which part it is that I have joined, and Knowing how to change to another part if that part does not suit me. To know is to exist: to exist is to be involved, to move about, to see the world with my own eyes. This, at least, the Movement has given me. (*Search*, 125-126)

그녀는 어머니를 그 공동체의 산 증인이라고 말할 때 어머니의 이야기는 남부의 경험 더 나아가 미국의 경험으로 확장 시켜 역사적인 이야기가 된다. 사실 여성의 이야기를 역사적 진실을 요하는 픽션으로 바꾸는 것은 여성들의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관습에 도전하는 것이다(Froula, 637).

이 소설에서 쉘리를 비롯한 인물들로 하여금 사회의 규약과 사회의 본질적인 토대를 개혁하여 인간과 사회의 온전성을 강화시키고 확대하고자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온전한 공동체로 만들고자하는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머니스트는 온전한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며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관습을 재구성한다. 위커는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주제들을 사용해서 소설을 썼다. 그것은 강간, 근친상간, 동성애 등의 주제들이다. 사실 우먼니스트도 전통적으로 부여된 백인과 남성위주의 시각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금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칼라 퍼플』에서 온전한 공동체의 추구가 노예체험기에 나타난 흑인 여성의 삶의 각도에서 읽혀질 때 인물들 개개인의 삶은 흑인 집단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된다.

위커는 그들로 하여금 그런 사회의 규약과 사회의 토대를 변화시키려 할 때 인간의 온전성과 사회의 온전성을 강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온전한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는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미 헨더슨(Mae G. Henderson)은 “위커의 예술은 해방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 여성들, 그리고 공동체를 재건하고 교정하기위한 행위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67). 위커는 이 소설에서 억압의 해결책으로 온전성 또는 원만성을 제시한다.

이 용어들의 전통적인 의미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대립 속에서 발생했기에 양극화 적대감과 두려움을 야기시켰다. 그런 대립의 해체를 통한 온전성은 흑인역사의 기만을 찾아서 흑인역사의 진실성을 복원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립될 수 있는 것이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온전성을 통해서 우먼니스트로 변화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녀가 주장하는 온전성은 여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변화도 요구한다. 위커는 그것을 흑인 사회의 이상형으로 보았다. 여성들은 남성들을 여성화시킴으로써 그리고 여성의 가치를 확인해주는 여성과 남성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흑인 사회의 전체성을 회복시키고자 시도하였다.

이 작품에서 온전한 공동체로 가는 길은 여성과 남성인물들 모두가

성별에 기초한 지배와 복종의 노예화의 개념에서 벗어나 건강한 심리학적 자웅동체로 향해 가는 것이다(Irwin, 39). 위커의 온전성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상실된 정체성의 회복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미국사회에서 흑인여성들은 억압 받는 자들 중의 억압받는 자로서 살아 왔다.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며 그들의 경험들은 무시되어왔다. 미국에서 흑인의 역사는 노예로서 강제로 자신들의 고향에서 노예선을 타고 미국으로 끌려온 흑인 노예들로부터 출발되었다.

흑인 여성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노예시대라는 상황을 아주 핵심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노예해방 후에도 흑인 여성들의 지위는 노예와 다름이 없었다. 이러한 인종차별과 성차별은 많은 흑인 여성들을 가난의 문제에 봉착하게 했다. 그들은 소외된 자들 중의 소외된 자들이었다.

『칼라퍼플』에서 나타난 흑인 여성들의 제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화상황에서 다소 생소하고 이질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타자화 되어왔던 흑인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봄으로써 그들의 고통스런 상황을 살펴보았다. 여러 억압의 상황에서 흑인여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생존을 지키고 온전히 살아남았으며 그녀가 말하는 새로운 여성상, 우머니스트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 작품의 초반부에 나오는 14세의 흑인 소녀 쉘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침묵 속에 살도록 강요받는다. 가난하고 못 생기고 교육받지 못하고 학대받는 흑인여성들의 목소리를 들리게 해준다. 흑인 여성 쉘리가 수많은 억압의 상황 하에서 스스로 정체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남에게 끌려오고 끌려 다니며 어찌면 살아남지 못 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커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흑인 여성들과 연대하여 공동체를 구성하고 억압을 극복해가면서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회에서 미덕으로 내세우는 침묵 인내 순종 등을 맹종하기만 했다면

썰리는 한없는 고통과 고난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흑인 여성들의 성차별, 인종차별, 계급차별로 가장 고통 받는 흑인 여성들의 삶을 폭로함으로써, 한 사람의 개인적 경험이 역사적 정치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붓아버지 알폰소에게, 남편 앨버트에게서 성폭행을 당하고 학대당하던 한 흑인 소녀가 당당하게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가난하고 못생기고 흑인이지만 그러나 나는 여기 있어요라고 주장하는 썰리에게서 우리는 그녀가 말하는 우머니스트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백인 중산층 여성들이 자신들은 남자들과 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달리 우머니스트는 남과 여, 흑과 백, 부자와 가난을 넘어서 공동체의 화합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또한 억압과 폭력에 맞서 용감히 자신의 목소리를 주장하는 여성이다.

위커는 모성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한다. 기존의 페미니즘이 여성들의 결혼과 어머니 됨을 희생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 모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 “인류 최초의 인간을 낳은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후 후손들을 잉태한 이가 누구인지를 상기해야 한다. 이 후에 농업을 시작해서 기후와 날씨가 변했을 때도 인류에게 먹을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애썼던 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나쁜 상황을 개선시키는 법을 알고 있다. 사람들이 모이면 시작된다. 그래서 우머니즘이 그토록 중요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흑인 여성들은 다른 흑인 여성들과 다른 흑인 남성들과 강한 연대를 맺음으로써 자신감을 증대시키고 상호적인 관계를 향한 가능성을 열었다. 서그가 썰리의 창조적인 잠재력을 발견하고 실현시키도록 도와주었을 때 썰리의 자신감이 확인 되었다. 썰리는 훌륭한 재봉가였고 편안한 바지를 만드는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 이로 인해 썰리는 마침내

경제적인 독립을 이룬다.

또한 백인 남성위주의 왜곡된 신관에 의해 여성을 억압해온 도구로 사용되던 종교가 셔그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신은 남성도 여성도 아님을 깨우쳐준다. 그리고 신에게로 시작되던 썰리의 편지는 이 작품 후반부에서 신에게, 별에게, 달에게, 나무에게 등 자연 만물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동생 네티는 썰리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의식의 지평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워커는 흑인 여성들에게 있어서의 문자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소피아는 썰리에게 남성의 폭력에 인내하며 복종만 하는 것이 미덕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주변 여성들과의 자매애는 흑인 여성 썰리의 자아확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흑인 사회는 여성을 배제시킨 채 남성을 대표하여 인종차별을 철폐하려고 하였다.

결국 워커의 전체성 추구는 여성과 남성이 전체로서 조화를 이루어 완전함을 추구할 때 인종차별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계는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 연결되어 있다. 한 부분의 문제는 전체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이 구획되어지고 분리되어왔다. 우리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이세상의 모든 다른 아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한 채 자라난다. 자신들이 동물이나 식물들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느낌도 갖지 못한다. 식물과 동물을 학대해도 괜찮다고 교육 받고 있다. 이런 이걸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기 집 뜰을 가꾸고 애정을 쏟아 붓는 것만큼의 열정으로 이 땅 전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또한 인간은 이토록 경이로운 장소인 지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버텨나가야 하며 지구를 절망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설사 우

리 눈이 닿는 곳마다 나쁜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찬찬히 바라본다면 봄이 쉬지 않고 찾아온다는 걸 이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겨울은 신선한 눈을 흘날리며 찾아온다. 여름은 우리에게 과일과 더불어 그 달콤한 내음과 풍성함을 가득 안겨준다. 가을은 우리에게 휴식할 채비를 마련 해준다. 인간들의 어떤 나쁜 행위라 하더라도 계절의 변화나 계절이 인간에게 선사하는 고귀한 선물을 막지는 못한다. 우린 우리의 불운보다도 행운을 확신하기 시작해야한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이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너무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 언제나 출발하기에 적당한 자리는 우리자신의 자아와 더불어 시작하는 곳이다.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쉬어 보자. 세상이 요구하는 평화는 우리가 우리자신의 내부에서 끌어내야만 비로소 찾아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쉴리의 자아실현은 성적인 해방과 경제적인 자립 그리고 올바른 종교관의 확립 등으로 나타나는 데 이것은 셔그와의 우정과 동성애를 통해서였다. 가부장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관계와는 달리 쉴리와 셔그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 쉴리는 셔그가 자신의 삶에 끼친 영향력을 의식하면서 결국 그녀의 인생이 셔그에 의해서 변화되었음을 고백한다.

인간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온갖 고통에도 불구하고 위커의 세계관은 긍정적인 의식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겠다. 그녀는 이 작품을 통하여 그 동안 침묵 속에 묻혀 있던 흑인 여성의 세계를 보여주고 건강한 자아회복의 여정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흑인 여성의 정체성 확립에도 기여한 바가 있다.

참고 문헌

김난주. 『앨리스 워커의 더 칼라 퍼플 연구: 흑인여성의 자아 실현과 흑인 사회의 전체성 추구』. 서울: 고려대학교, 1996.

김성은. 『앨리스 워커의 소설에 나타난 재생의 양상: 『그레인지 코플랜드의 세 번째 삶』과 『칼라 퍼플』을 중심으로』. 서울: 경희대학교, 1998.

보봐르, 시몬느 드. 『제2의 성』. 조홍식 역. 서울: 을유문화사, 1994.

신명아. 「앨리스 워커 소설에서의 우머니스트 연구」. 『영미문학 페미니즘』 1집. 1995: 21-47.

심정순. 「주체적 자아의 완성: 보랏빛과 여인무사에서 여주인공의 경우」 『외국문학』 17호 1988: 65-81

임소희. 「앨리스 워커의 『칼라 퍼플』: 살아남기 전략으로서의 글쓰기」. 『영미문화연구』 제1집, 1997, 49-67.

최은경. 「인간의 가능성과 변화의 갈망」. 『영미 여성소설의 이해』 서울: 민음사, 1994: 585-599.

Abbandonate, Linda "A View from Elsewhere: Subversive

- Sexuality and the Rewriting of the Heroine's Story in *The Color Purple*.” *PMLA* 106 (1991): 1106-1115.
- Beauvoir, Simone de. *The Second Sex*. Trans. H.M. Parshley. New York: Knopf, 1952.
- Berlant, Lauren. “Race, Gender and Nation In *The Color Purple*” *Critical Inquiry* 14 (1998): 831-859.
- Bloom, Harold. Ed. *Alice Walker*.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9.
- Byerman, Keith. “Walker's Blues.” Bloom 59-66.
- Christian, Barbara. “The Black Woman Artist as Wayward.” *Modern Critical Views in Alice Walker*.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1989. 39-58.
- Froula, Christine. “The Daughter's Seduction: Sexual Violence And Literary History.” *Signs* (1986): 621-44.
- Harris, Trudier. On *The Color Purple*, Stereotypes, and Silences. *Black American Literature Forum*. 18 (Winter 1984): 156-157.
- Henderson, Mae G. “*The Color Purple*: Revisions and Redefinitions.” Bloom, 1990, 67-80.

Hooks, Bell. "Writing the Subject: Reading *The Color Purple*." *Alice Walker*.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1989. 215-28.

Irwin, Edward E. "Freedom as Value in Three Popular Southern Novel." *Proteus* (Spring 1989): 37-41.

Kaplan, Cora. "Keeping the Color in *The Color Purple*." *Sea Changes*. London: Verso, 1986. 177-90.

McDowell, Debora E. "New Directions for Black Feminist Criticism" In *Within the Circle*. Ed. Angelyn Mitchell. Durham: Duke UP, 1994. 428-41.

Millet, Kate. *Sexual Politics*. New York: Ballantine Books, 1970.

Mills, Sarah. *Feminist Readings / Feminists Reading*. New York: Harves Wheatsheaf, 1989.

Walker, Alice. *The Color Purple*. New York: Pocket Books, 1985.

Walker, Alice: *In search of Our Mother's Gardens: Womanist Prose*. New York: Hartcourt, 1983.

Wall, Wendy. "Lettered Bodies and Corporeal Texts in *The Color Purple*." *Studies in American Fiction* 16, 1988. 83-97.

Wills, Susan. Alice Walker's Women, Specifying: Black Women Writing The American Experience. The Univ. of Wisconsin Press, 1987, 110-128.